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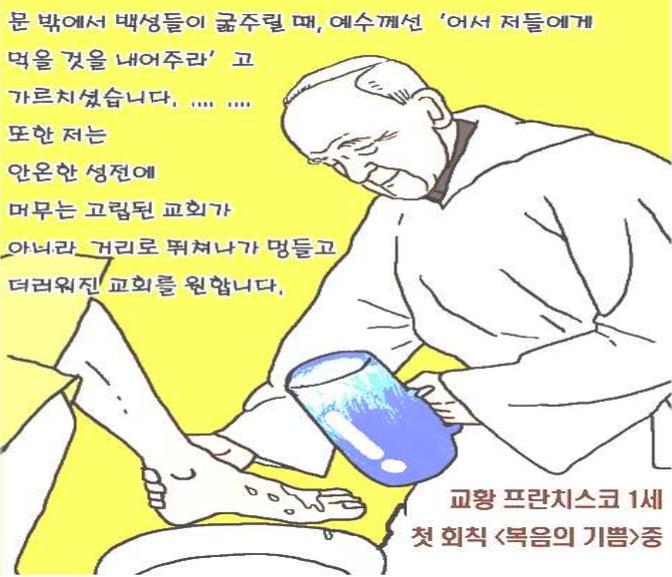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 35, 1-6, 10
 [화답송] 시편 146(145), 6-7, 8-9, 9-10, 10-11
 (◎ 이사 35, 4 참조)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독서] 야고 5, 7-10

[복음 환호송] 이사 61, 1 참조(루카 4, 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

[복음] 마태 11, 2-11

성가	8시 미사	입당 93	봉헌 41 218	성체 160 167	파견 37
	11시 미사	입당 93	봉헌 41 218	성체 160 167	파견 37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대림 제 3주일(12월 15일)		대림 제 4주일(12월 22일)		성탄 전야 밤미사(12월 24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저녁 8시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정스텔라(애리)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정요한(석준)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임승원(루카)
제 2 독서	최분다(수영)	손리디아(정욱)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김안젤라(영선)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구분	성탄 미사(12월 25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12월 29일)		송년미사(12월 31일)
	오전 11시		8시	교중미사	저녁 8시
미사해설	조레지나(선덕)		김글라라(순희)	이엘리사벳(자영)	허세실리아(홍숙)
제 1 독서	허라우렌시오(순구)		이바로로(명국)	김길베르토(광호)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허파비울라(옥진)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서데레사(춘애)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주일인 오늘의 제의 색깔은 장밋빛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듯이 장밋빛은 기쁨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장밋빛 제의는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과 환희와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입당송은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필리 4,4.5참조)고 노래하고 있으며, 제1독서인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이사35,1)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외로운 곳이고, 사막은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메마른 곳인데 어떻게 즐거워하며 꽃을 피우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바빌론 유배생활 중에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하며, 이젠 다시는 고국에 돌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기쁨의 메시지이며, 기쁨을 주시는 주인공은 바로 하느님 이시며,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구해주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기쁨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표징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요한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전해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자선과 환대를 베푸시는 온화하고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이에 혼란스러운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대신에 이사야 예언서를 언급하시며,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

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11,4-6)라고 응답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로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이시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님께 대한 기다림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2독서에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야고5,7-8) 우리는 비록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나약한 신앙의 소유자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구원의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 분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크리스마스트리를 더욱 화사하게!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서울광장 같은 공공장소에도 웅장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지고, '성탄 특수'를 노리는 상점들의 화려한 장식과 음악 소리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작은 표지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하늘나라의 작은 표지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는 혀를 환성을 터뜨리리라.” (이사 35,5-6)라는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는 이사가 예언자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표지들이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되어 올해 성탄에 세우게 될 크리스마스트리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오늘의 복음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세례자 요한이 약간 동요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 11,3)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로마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성한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에서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비하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마태 9), 다리 저는 이들은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시며(마태 15, 요한 5),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루카 17)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해 주시며(마르 7)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해주셨지만(마태 8), 이런 혜택을 누린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의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마태 11,5)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반응이 없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태 11,11)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미루어 요한은 주님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이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마태 11,11)



높은 산들은 향기로운 나무냄새로
당신께로 가는 길을 만들고
오래된 언덕들은 더 낮게 엮으려
곧고 단단한 길을 새로이 엮어갑니다

글_ 정지원 루치아, 그림_ 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나를 위한 투자

몇 해 전 사무실을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어 집기 한두 가지를 사려고 백화점에 갔던 날의 일입니다. 남자가 평일 대낮에 백화점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백화점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물건을 고르는데, 맞은편에 서 있는 아주머니의 낯이 익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기억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원하던 물건을 사고 차에 올라타니 그제서야 어떤 분이였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회사에서 지친 몸을 끌고 나와 차를 운전하며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옆 골목에서 차가 하나 튀어나오더니 제 차 운전석 뒤의 바퀴 부분을 정통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나올 때는 지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나와야 하는데, 그 차는 그대로 달려 나왔으니 100% 상대방의 과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마터면 크게 다칠뻔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당장 주먹다짐을 벌일 태세로 다가가 보니, 상대방 운전자는 여자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차에서 내린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길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줄지에 제가 가해자인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아이고 난 몰라! 엉엉엉 우리 애 아빠 알면 나 쫓겨나는데... 엉엉엉”

잘못 없는 제 차는 다 찌그러져 있고, 구경꾼은 다 아줌마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남편한테 내쫓긴다는데... 아줌마를 일으켜 세워 달래면서 너그러워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은 까닭 없는 너그러움이 솟아났습니다. “내 차는 내가 고칠 테니, 아주머니 차는 아주머니가 고치세요. 원래는 아주머니 과실이지만 그냥 가세요. 운전 조심해서 하세요.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바로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어쨌든 벌일 아닌 마주침이었지만, 제게는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만일 그 사고가 난 날, 제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싸움으로 끝났을 겁니다.

저는 분풀이를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보험금을 타서 수리비용 일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면부지의 한 사람을 개운치 않은 악연으로 기억에 남겼겠지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남을 배려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 투자가 되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박용만 실바노
(주)두산 회장

머무름

생명의 복음은 비단 믿는 이들만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이성의 빛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련될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101항

가톨릭전례 “성모님의 겸손은 온 교회가 본받아야 할 덕인가요?”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의미를 줍니다. 수난 직전 예수님께서도 믿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 17,21)라고 하시며 성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치를 이루는 핵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서로를 엮어 줍니다. 겸손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녹아들게 하는 덕입니다. 교만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지만 겸손은 일치와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1912년, 거대한 빙하 하나가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하는 타 이타닉호를 침몰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슬픔을 만들어냈습니다. 빙하는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공 얼어있는 탓에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단단합니다.

인간의 이기심도 얼음처럼 차가운 영혼에서 나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폐쇄되어 공공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따스한 햇볕에 녹듯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은 진리와 사랑으로 녹아내려야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더 넓고 깊은 바다와 하나가 되어 모든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더 큰 진리의 바다에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춤으로 진리가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겸손의 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큰 나무로 키우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덕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겸손의 덕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성모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세상에 혼란을 불러오는 죄의 창문을 열었지만,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겸손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구원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와는 세상에 어두움을, 성모님은 빛을 가져왔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겸손함은 교만함을 치유합니다. 동정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458-463항 참조)

하나님의 겸손하심은 마리아의 겸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작고 보잘 것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총과 권능의 위대함을 찬양하였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시고 그분의 겸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면 겸손은 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덕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는 나자렛 고을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루카 1,31-35)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피조물이 희망과 숨 막히는 긴장감을 지닌 채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마리아의 대답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지극히 겸손함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으며, 그 한 마디로 인하여 세상의 역사는 새롭게 바뀌어갑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서울 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456-511항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3	204	38	325
헌 금	\$567	\$1,249.25	\$35	\$1,851.25

< 교무금 > \$4,060

이영기(11-12) 정혜경(1-12) 임장만(1-12)
 김순이(12) 박영실(11-12) 채용분(12) 평현팔(12)
 신우현(11-12) 윤성진(8-12) 이흥구(11-12)
 김영길(11-12) 강신호(10) 양우선(11-12)
 황정희(12) 김정복(12) 심재구(12) 임윤택(12)

< 성소후원금 > \$250

임장만(1-12) 김순이(12) 박영실(11-12)
 채용분(12) 정일양(6-12) 김정복(12) 임윤택(12)

< Bishop's Appeal > -

박영실(11-12)

< 감사헌금 >

김순이 \$200 정일양 \$100 함용기 \$200

< 대림초/꽃 >

한동설 \$100 구혜순 \$100 송분학 \$50 김순이 \$100
 신우현 \$100 김병수 \$50

< 2차 헌금 > \$756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날짜	지 향	봉 헌 자
12월 15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김안나(명숙)	이베로니카
	연 부모님	임루시아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생 이골롬바(정연)	찬미성가대
	생 박마리아(덕희)	하늘의문 Pr.
	생 양마르코/수산나가정	박데레사
	생 이조셉/세레나가정	박데레사
	생 박스테파노/실비아가정	박데레사
	생 임루시아	서데레사
	생 차루시아(아름)	차리디아
12월 17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김다윗(승우)	익명
12월 18일 수	생 조분다	요아킴회/안나회
	생 장베로니카	요아킴회/안나회
	생 정카타리나	요아킴회/안나회
	생 송수산나	요아킴회/안나회
12월 19일 목	생 이루시아(영문)	김엘리사벳
12월 20일 금	생 유이냐시오(제청)	전수산나

~~~~ 오늘의 간식은 한치용 요셉/헬레나 댁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항 -

- ◆ 얇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 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 다음주 22일에는 성탄 맞이 대청소가 구역별로 있을 예정입니다.
- ◆ 성탄 및 송년 전례 안내  
12월 24일(화)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  
12월 25일(수) 오전 11시 성탄 미사  
12월 31일(화)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1월 1일(수)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  
\* 25일, 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대림절 성경 쓰기 : 시편 71장 - 150장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 성탄판공성사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 성탄봉성체  
일시 : 12월 20일(금) 오후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대림초/성탄 재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성탄 구역별 장기자랑 및 성가경연대회  
일시 : 12월 25일 성탄 미사 후  
\* 경품잔치에 사용될 선물(\$20 상당)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 당일 판매하는 라플 판매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 대림절 맞이 성물방 20% 세일  
성물방 이익금은 빈첸시오 후원에 사용됩니다.
- ◆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12월 22일 청소 후 친교실(정단원 및 협조단원)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울뜨레야 모임 : 12월 1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뜨개질사랑회 : 12월 1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 하상회 : 12월 21일(토) 오후 5시 대건회관

- ◆ 사목위원/단체장 연말 모임  
12월 29일 미사 후 친교실
- ◆ 올해의 교우상 후보자 추천  
수상 내역 : 추천서 참조  
시상 : 12월 25일 성탄대축일 미사 중  
접수 :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 대림피정 강의 CD 예약 접수  
원음 버전 \$20(CD 4장과 소장용 케이스)  
MP3 버전 \$10(CD 1장과 일반 케이스)  
예약 : 친교실이나 사무실에서 12월 22일까지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대림피정 양일간 간식을 준비해 주신 성모회원 여러분들과 찬미를 이끌어 주신 성가대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복가주 ME 연말 모임  
일시 : 12월 28일(토) 저녁 6시  
장소 : 산호세 성당 \* 참가비 : 부부당 \$60
- ◆ 복가주 제 25차 ME 첫주말 공지  
일정 : 2014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2박 3일)  
장소 : Hilton Garden Inn, Hayward CA  
문의 : 한요셉 415-810-3175/한헬레나 925-285-2038
- ◆ 각 단체장들께서는 2013년 결산 및 행사보고서와 2014년 예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22일까지 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 각 단체장들께서는 2013년 회계장부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 2014년도 간식(떡) 신청  
한 가정이 하면 \$300, 두 가정이 같이 하면 \$150씩  
신청 : 성모회장 510-914-0709  
\* 2013년도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매일미사 책값은 \$5입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  
- 탈렌트쇼 : 오늘 영어미사 후 친교실

**안국학교 소식**  
- 12월 14일 ~ 12월 28일 : 겨울 방학  
- 2014년 1월 4일 : 개학